

바쁜 출근 지친 퇴근, 즐겁게 바꾸자

바지락

2026년 6·7월호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산업단지,
민주노총·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2026년 폭염!
사업주에게 요구하세요

누구나 금속노조 -
부산양산지부 하이록코리아지회



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산업단지 민주노총·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5/11(월) 민주노총 ‘노동중심 산업단지 만들기 2026 지방정부 정책요구 기자회견’ 모습〉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 서명운동에 노동자·시민 18,646명 참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산업단지 노동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대다수의 영세 사업장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산업단지 안전 및 복지 문제 해결 ▲산업단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산업단지 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산업단지 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번 〈2026년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요구 서명〉운동에는 전국에서 총 18,646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뜻을 모아 동참해 주셨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소중한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중앙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를 던졌으며, 그 결과를 대중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방선거 관련 정책 질의 및 협약 체결 진행



〈 5/16(토) 안산시 노동절 축제 <노동의 봄>에서 열린 지방선거 후보자 노동정책 협약식 모습 〉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지방선거 대응 행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 전북, 광주·전남, 부산, 대구, 경남, 강원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산업단지 현안을 포함한 노동 중심의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에 화답한 지방선거 후보자와 노동정책 협약을 체결했으며,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6월 중, 산업단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첫 간담회 개최 예정

아울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리 총괄 부처인 산업통상부와 6월 중 첫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1,300여 개의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제도 개선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금속노조는 앞으로도 산업통상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산업단지 관련 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현장의 의견이 정책이 되고, 안전과 노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폭염예방대책 사업주에게 요구하세요



폭염, 사업주가 막아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25년은 여름철(6월 ~ 8월) 전국평균기온이 25.7도로 전국적인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더운 해였다.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2025년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65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각각 전년대비 20.4%, 27.5% 증가한 수치다. 온열질환은 아니지만 폭염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뇌·심혈관계질환이나 추락,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다면 폭염이 여름철 노동자 건강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회사에 요구하세요.

개정 산안법에 따르면 폭염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을 뜻하고, 31도가 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일하는 작업을 폭염작업이라고 한다. 폭염작업이 실내일 경우 사업주는 ①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②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③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①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②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33도가 넘어갈 시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해당조치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내 몸의 기준으로 사업장 온도를 낮추자!

체감온도 33도가 넘을 시 2시간마다 부여되는 20분 이상의 휴식은 최소한의 조치다. 폭염에서 계속 작업할 경우 온열질환 발생 확률이 5.7배 이상 증가한다. 일하는 곳이 덥다면 냉방과 통풍을 통해 온도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

분명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은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 등으로 인해 더 더운데 회사에서 설치한 온습도계는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다. 법은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바닥에서 1.2~1.5미터 위에 설치하라는 기준만 있을 뿐이다. 실제 내가 일하는 곳의 온도가 제대로 측정될 수 있는 장소에 온습도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온습도계의 체감온도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작업복, 작업화 등 다양한 장비로 인해 실내 체감온도보다 더 더울 수 있다. 정부 기준은 최소 기준이다. 내가 일하는 곳에 적합한 폭염대책은 언제든 요구할 수 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것이 내 몸이든, 사업장의 온도조절과 휴식은 내 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다. 그 중 하나가 폭염일 가능성이 높다. 폭염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법제도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우리 현장을 바꾸는 힘이다. 급속노조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 현장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급속노조에 문의해주시기 바란다.

누구나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하이록코리아지회

Q 지회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하이록코리아지회는 현장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년 12월에 설립한 노동조합입니다. 우리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안전한 일터와 공정한 노동조건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처음 금속노조에 가입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나 현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노조 만들기 전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부서장이나 관리자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부터 살펴야 할 정도로 현장의 분위기가 수직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도 개인이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웠고 많은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일해야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런 문제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당연한 우리 권리를 되찾는 게 저희의 바람이었습니다.

Q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A 가장 큰 변화는 노동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쉽게 말해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회사의 눈치만 보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속앓이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점, 내 옆에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도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안전엔 금속노조





Q 앞으로 현장에서 꼭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A 회사는 성장하고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장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 부담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실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싶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근속이 길어질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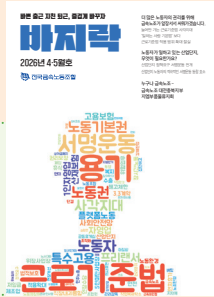
Q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 한마디!

A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권리와 복지 역시 우리의 참여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혼자로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으니, 노동조합과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모여야 힘이 생기고, 우리의 일터가 바뀝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 함께 합시다. 우리 금속노조는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스마트폰 더욱
스마트하게 쓰는 법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찰칵!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 보기 QR

꿀팁. <바지락>을 모바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면 유익한 실전 노동법과 다양한 정보.
지난 내용이 궁금하다면, 찰칵!



민주노총 노동상담페이지 QR

전국 어디서나 무료 노동상담 전화 1811-9509
온라인으로 노동 상담받고 싶다면? 찰칵!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없는 노동자라면? QR

노조없는 노동자를 위한 꿀팁이 가득

**나와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삶과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힘, 노동조합
금속노조와 함께
당신의 삶과 일터를 바꾸어보아요.**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직장갑질 · 산재사고
무료 노동 상담 · 가입 문의 ☎ 1811-9509